

나주시, 차세대 전력망·핵융합에너지 기술 선점 '박차'

정부에 '고전력반도체' 지원 강력 요청 400억 규모...2030년까지 실증 진행 기술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 시너지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망과 핵융합에너지 등 국가 미래 산업의 핵심 전자기능 선점에 팔을 걷어붙이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 대행과 관련 실무진들은 최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미래 에너지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의 최우선 핵심 과제는 '고전력반도체 모듈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가운데)은 최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 부처를 방문해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나주시 제공>

이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내에 전력반도체 모듈 플랫폼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실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4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우선 성공적인 첫발을 떼기 위해 오는 2027년도 평가

장비 구축 등에 필요한 국비 50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고전력반도체는 고전압 전력 변환과 직류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물론,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및 중전압직류(MVDC) 기반의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전력반도체 국산화를 이끌어갈 절대적인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컨택을 비롯해 굵직한 에너지 공공기관 및 연구소들이 동지를 들고 있는 지역적 강점을 내세워, 고전력반도체 연구·시험·평가 체계 구축의 최적지를 각인시켰다.

해당 인프라가 조성되면 산·학·연 협력 기반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산업체와 연계한 고전력 모듈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12대 전략기술 미션(K-문샷) 중 하나인 핵심 과제 '핵융합 소형 실증로 개발 및 전력 생산 실증'을 주도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의 연구·기술 인력 충원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해당 연구원은 핵융합 상용화와 한국형 핵융합로 기술 개발 등 매머드급 국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인력과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인력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차세대 전력망과 핵융합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절대적인 핵심 분야"라며 "컨택과 에너지 공공기관이 집적된 압도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 연구 기반을 지속 확충해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영광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무료 지원

51-80세 짝수년도 376명 선착순

근골격계·농약중독 등 10개 진단

영광군은 여성농업인들의 고질적인 농작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출생 건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의료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선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51-80세(1946-1975년생)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376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선착순으로 무료 지원한다.

이번 검진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폐기능, 골절·손상 위험도, 농약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핵심 항목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전문 검진 기관은 지역내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 두곳으로, 대상자는 농업·지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해 간편하게 신청한 뒤 곧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모집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이번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며, 고된 영농 활동으로 지친 여성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농작업 질환 예방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농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건강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세계은행(WB) 관계자와 페루·칠레 등 남미 국가 공무원 등이 완도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 해조류 양식 '세계가 주목'...WWF·WB 잇따라 방문

〈세계자연기금·세계은행〉

가공시설·바이오산업 기관 등 견학

국가 간 기술교류 등 협력 방안 논의

완도군이 기후 위기 대안이자 미래 먹거리인 '블루카본'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의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유엔(UN) 산하 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관계자들이 완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자연기금과 인천대학교가 추진 중인 해조류 양식 산업 발전 협력의 일환으로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가공 시설과 해양

바이오산업 기관 견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2023년과 2025년, 세계은행도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완도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조류 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 27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해조류 산업 비전 강연을 청취한 뒤, 해양바이오본부와 다시마·돛 양식장 등 산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페루·칠레·에라도르 등 남미 국가 공무원들을 포함한 세계은행 방문단 14명이 김양식장과 가공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으며, 개발도상국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완도 해조류 생산·가공·연구 및 시설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기술 교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완도는 단순 식품 산업을 넘어 해양바이오와 블루카본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1년 미 항공우주국(NASA)이 완도의 친환경 양식장 위성 사진을 공개해 극찬한 이후, 글로벌 기업과 주요 단체들의 현장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제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완도 해조류 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확실히 인정받은 결과다"며 "긴밀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해조류 산업의 거점 도시로 굳건히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군, 고산윤선도유적지 야간 '특별 개방'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해남군이 초여름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역사 명소의 특별 야간 개방을 통해 색다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해남읍 고산윤선도유적지(사진) 일원에서 '고산유적지 달빛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보름달이 뜨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유적지 특유의 고즈넉한 자연경관과 역사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관광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당일에는 고산윤선도박물관과 땅골순례문화관, 고산유적지 등 주요 시설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은은한 달빛 아래 여유로운 관람을 돕는다.

또한 땅골순례문화관에서는 실을 엮는 스트림아트 체험을, 박물관 다도체험실에서는 전문 강사가 이끄는 전통 다도 체험 등 다채로운 현장 참여형 프로그램도 열린다. /해남=박복용 기자



이와 함께 문학관 로비에서는 시화공정 '담소' 공연이 더해져, 야간 관람과 전통 체험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복합 문화 행사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뜻깊은 야간 문화 체험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신규농업인 맞춤형 영농 현장 교육

고추·딸기 등 5개 품목 기술 전수

함평군은 청년 신규 농업인과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실전 밀착형 영농 지원에 나섰다.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 내 초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우수 선도 농가의 실제 재배 현장에서 핵심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맞춤형 영농 현장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들이 흔히 겪는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재배 기술을 익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반을 다져주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10명 규모의 소규모 그룹으로 편성했으며, 대상은 지역 특화 작물인 고추, 무화과, 딸기, 콩, 토마토 등 총 5개 품목이다. 각 품목별로 3-5회에 걸쳐 집

중적인 현장 실습이 진행된다.

세부 과정은 품종 분류 및 선택법부터 시기별 재배 실습, 병해충 관리, 생육 관리 기술 등 농사 전반을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짜였다. 베테랑 농가의 생생한 경험이 신규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예정이다.

문정모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규 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며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든든히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암군, 벼 공동육묘장 생육 현장 점검

9곳 대상 이상 저온 피해 파악

영암군이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우량묘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농협 벼 공동육묘장 9곳을 대상으로 벼 육묘 생육 상황과 전반적인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발생한 이상 저온 현상이 연약한 벼 육묘 생육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가오는 모내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당 부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공동육묘장의 출아 상태를 비롯해 생육 균일성, 시설 내 온·습도 관리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일부 저온에 따른 미세한 영향은 관찰됐으나, 전반적인 발아와 생육 상태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본격적인 이앙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규모 공동육묘장은 물론 개별 농가의 육묘 상황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현장 점검과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해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박미아 농업정책과장은 "육묘 현장을 꼼꼼히 살핀 결과 다행히 큰 이상 없이 우량묘가 잘 관리되고 있다"며 "기상 변화에 따른 돌발 변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찰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목포해양대, 국제항해 실습·교류 활동 돌입

실습선 세계로·새누리호 필리핀 도착

362명 해운기업 방문·명예박사 수여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글로벌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국제항해 실습과 해외 교류 활동에 돌입했다.

18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따르면 실습선 세계로호와 새누리호가 지난 11일 국제항해실습의 첫 기항지인 필리핀 마닐라항에 무사히 입항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이틀 선박은 지난 7일 실습생 362명과 교직원 57명 등 총 322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이번 국제항해실습은 예비 해기사들이 해외

주요 항만을 직접 기항하며 글로벌 선원 관리 절차와 선박 운영 시스템을 몸소 체득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필수 실무 교육 과정이다.

마닐라항에서 4박5일간 정박하며 현지 해운 기업 방문을 비롯해 예비 해기사 훈련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선상 리셉션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두 실습선은 각각 대만과 일본 주요 항구를 거쳐 오는 20일 복귀한다. <사진>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마닐라항 현지에서 대학 및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종팔 포스콘그룹 대표이사에게 명예경영학박사를 수여하는 등 명예선장·명예동문 칭호 수여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